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짹짹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짹짹이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짹짹이

완성된 이름

짹짹이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짹짹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서로 짹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벌.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뽕뽕이	-	-	-	-
쌈쌈이	-	-	-	-
짹짹이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서로 짹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벌.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 짹짹'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서로 짹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벌.

☞ 짹짹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짹짹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짹짹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짹짹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짹짹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짹짹
18세기
- 짹짹
18세기20세기
- 짹짹
19세기20세기현재

ㄱ 짹짹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ㄷ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짹짹이’의 옛말인 ‘뽁뽁이’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뽁뽁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ㄱ 말의 구성과 어원

또는 그중의 하나를 뜻하는 ‘뽁’이 반복된 ‘뽁뽁’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ㄴ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뽁’의 초성 역시 ‘ㄷ’의 된소리로 바뀌어 ‘싹싹이’가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ㅆ’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에 ‘싹싹이’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표기 방식과 특징

20세기에 보이는 ‘싹싹이’는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 문헌 속의 싹싹이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찹쌀이, 뽕뽕이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찹쌀이, 뽕뽕이

출처 1748 동문유해 하:21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隻隻 찹쌀이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90 몽어유해 하:17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隻隻 뽕뽕이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짹짹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짹짹이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55

용례 03

66 문헌 용례

짹짹이 [隻隻]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찹쌀이, 짹짹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찹쌀이, 짹짹이

출처 1923 동아일보 3월 24일 1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普通으로 우리의 眼은 짹짹이다.

現代어 풀이

보통으로 우리의 눈은 짹짹이다.

출처 1936 동아일보 2월 6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허다못해 구두 고무신까지 닦아 가며 짹짹으로 치맛자락에 싸 가지고 갔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3월 10일 7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눈동이 시퍼러케 부어서 눈이 짹짹이가 된 것이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작작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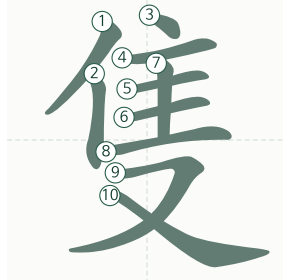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작작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隻

뜻·음 외짝 척
총 10획 · 부수 隹



hanja.wordrow.kr/한자/隻/

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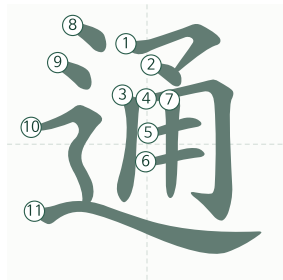
뜻·음 넓을 보
총 12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普/

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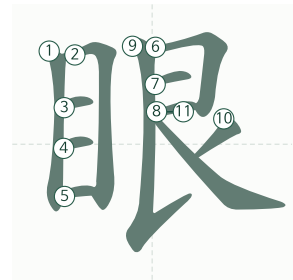
뜻·음 통할 통
총 11획 · 부수 辶



hanja.wordrow.kr/한자/通/

眼

뜻·음 눈안
총 11획 · 부수 目



hanja.wordrow.kr/한자/眼/